

# 전남도-진실화해위, 과거사 진실규명 협력

### 김영록지사, 정근식 위원장 면담 여순사건, 위원회 이관 협력 구축 전후 민간 희생사건 3735건 조사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근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과거사 진실규명 활동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 지사와 정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만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과 현장조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여순사건을 여순사건위원회에 이관하는 과정에서 협

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제출받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7월 말 현재 진실규명 신청 1만5698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1만153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접수 사건은 5515건에 달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전체사건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3735건을 조사개시한 상태다. 영암 840건, 신안 612건, 영광 502건, 함평 477건 순으로, 전남지역 사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또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여순사건은 총 1017건으로 여순사건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차로 693건을 여순사건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관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정 위원장과 김 지사는 진실화해위원회와 전남도 간 긴밀한 과거사 진실규명 협력 방안에 대한 적극 협력을 다짐하고, 신안, 진도, 해남, 영암 지역 등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홍보 강화와 현지조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전남지역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으로 그동안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과거사 진실규명 사건 접수 마감 때까지 많은 홍보와 조사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해 초 여순사건 실무위원회를 구성

하고 신고접수와 사실조사, 위령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마감일인 12월 9일까지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언론매체 활용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4월에는 군경과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 다수 발생한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남 신안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신안군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3일 72년 만에 지방정부인 여수시가 여수 안도에서 공식 개최하는 '야야포 폭격사건' 위령제에 참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역산업육성사업 평가 전남도, A등급...7억 추가 확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에서 전남도가 A등급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7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는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가 대상이다. 지역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산업 진흥계획에 대해 매년 시·도 이행실적을 평가한 후 S·A·B등급으로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강원도, 전북도, 대전시가 S등급을 받았고, 전남을 비롯한 6개 시·도가 A등급을 차지했다. ▲지역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관리 차별화 ▲지역 데이터 활용, 지역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등 환경변화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온실가스 규제 등 지역 산업계 이슈 분석의 적절성 ▲지역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정보제공 및 시각화 ▲지역사업 만족도 ▲지역 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해외비즈니스센터' 운영의 참신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 279명, 사업화 매출액 815억원의 성과를 낸 것도 한몫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행안부내 경찰국 설치 즉각 취소하라"

### 광주 지방의원들 촉구 행안부장관 해임도 요구

광주시의회와 광주 5개 자치구 기초의원들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취소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과 5개 자치구의 회 의원은 3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찰국 설치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강행은 역사의 퇴행이자, 14만 경찰을 과거 공안통치로 회귀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업무에는 치안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부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원들은 또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와 인사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게 돼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현저히 저해될 것이다"면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개혁방안을 전면 재논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원들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최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29일까지 공모

### 광주시·디자인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오는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행사를 총괄하는 총감독 후보자를 이달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국제행사 위상에 맞고 ▲국내외의 디자인 관련 전시·행사 기획 및 연출 경험 풍부 ▲국내외의 디자인 교류협력 ▲디자인비엔날레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있는 전문가를 총감독 후보자로 공모한다는 계획이다. 후보자 선발은 디자인, 행사기획, 유관기관, 산업계 등 다

양한 외부전문가로부터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추천하게 된다. 추천위원회가 사업 이해도와 후보자 전문성과 역량, 사업 수행 계획, 창의성과 차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후보자를 추천하면 디자인진흥원 이사회의 선출 절차를 거쳐 광주시장이 최종 위촉한다. 응모 희망자는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gdc.or.kr)의 '공고/공지'에서 신청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준비서류를 다운받아 오는 28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총감독은 내년 11월까지 2023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행사 주제 및 기본계획 수

립 ▲전시기획자(협력감독, 큐레이터 등) 선정 ▲국내외의 참여 디자이너, 참여기업 등 섭외 ▲행사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전시 연출 등을 총괄하게 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총감독 선임 절차와 함께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 행사 주제 선정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광주시내 일원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주제 전시 ▲특별전 ▲지역산업전 ▲학술행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비즈니스행사 ▲디자인 체험·이벤트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호남권 최초 주류 전시회 '광주 페스타' 11월 열린다

호남권 최초 주류 전시회인 '광주 페스타'가 오는 11월17일부터 11월2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관공도시 광주를 홍보하고 지역별 전통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사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따르면 올해 처음 개최되는 '광주 페스타'는 김대중컨벤션센터와 GBE(글로벌비즈니스마켓), 광주문화방송이 공동 주관하며, 전시 품목은 전통주, 와인, 맥주, 식품(안주), 주류 설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대표 음식페스티벌'과 동시에 개최돼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 7미(味)와 전통주의 조합을 경험할 수 있는 페어링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콜키지 프리(corkage free) 서비스를 제공해 광주 대표 음식점의 음식과 관광객이 직접 구매해 온 주류와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 민간단체들의 공연도 준비된다. 야외공연장에서는 창작극악단 '도드리'의 퓨전 국악, '무등 예술단'의 난타 공연 등이 진행된다. 이밖에 ▲다양한 전통주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주 바(BAR) ▲세계 각국의 명주 전시관 ▲광주 대표 주류를 활용한 기네스 행사 ▲우리 술 어워즈에서 공신력 있는 심사위원을 통해 선정된 최고의 전통주 체험이 제공될 예정이다. 수상 분야는 증류주, 맑은 술, 일반 막걸리, 프리미엄 막걸리, 기양주로 총 5개 분야이다. 광주 페스타 신청업체 대상으로 열리는 '우리 술 어워즈' 접수는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방고객 확보

4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문의 (영업지원팀)

5층 MG문화센터 회원 大모집 (요가, 노래교실, 라인댄스 상시 운영 중)

구분	이용 기간	정상 이용료	금남새마을금고 이용자 할인 특가 (원)		
			30점 이상 (10%)	40점 이상 (15%)	50점 이상 (20%)
정기 회원	1개월	200,000	180,000	170,000	160,000
	3개월	570,000	513,000	484,500	456,000
	6개월	1,080,000	972,000	918,000	864,000
	12개월	2,040,000	1,836,000	1,734,000	1,632,000

\* 이용자 할인 특가 문의 (영업지원팀)  
\*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 MG체크카드 이용 시 이용금액의 5% 추가 할인 (최고 2만원 할인)  
\* 유명 골프 프로 레슨 중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 062-223-8007